

# ‘산의 매력’을 책에 담는다

## 산을 지키는 산악전문 출판사들 ... 자연보호 운동과도 연계

산악전문출판사들은 출판이나 산을 오르는 일이 인생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정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렇고, 외롭다는 게 또 그렇다. 산악관련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두권씩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산악출판을 표방하고 10년 가까이 이어온 출판사는 드물다. 평화출판사와 사람과산, 수문출판사 등 세군데 정도다. 이들 출판사는 협소한 산악출판시장에서도 그 나름의 색깔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 등반기록 출판으로 문 연 평화출판사

산악전문출판사로 긴 연륜을 가진 평화출판사(대표 장인행)는 국내에 모험담이나 여행기 분야 출판이 활발하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70년대 초반 산악출판을 시작했다. 70년대는 국력과시의 한 방편으로 등산을 장려했기 때문에 등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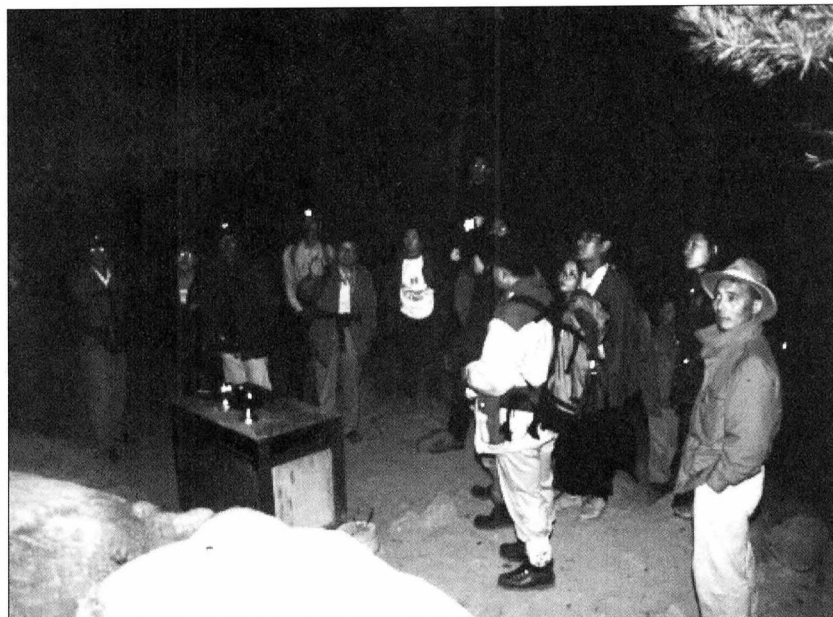
평화출판사의 단골은 라인홀트 메스너의 등반기다. 장인행 사장은 “등반기록이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학문이나 기술의 진보가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면 등산관련 출판은 새로운 등반기술이나 이론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한다. 등산관련 출판은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8천미터 이상 되는 세계의 14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하고 등반기록을 남겼는데, 《제7급》, 《죽음의 지대》, 《검은 고독 흰 고독》,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등을 평화출판사에서 펴냈다. 그 가운데 1983년에 출간한 《검은 고독 흰 고독》과 《죽음의 지대》는 등산전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책이다.

“등반이 유럽문화라서 용어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산악도서출판의 걸림돌”이라는 장인행 사장은, 등산용어 가운데 900여 개를 정리한 《등산용어사전》을 펴내 편집의 원칙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아직 의견이 달라 용어통일은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다.

### 실용서류 장악한 '사람과산'

월간지로 시작해 단행본으로 출판영역을



산악전문 출판사들은 협소한 국내 산악출판 시장에서도 그 나름의 색깔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사람과산' 편집부의 야간산행 모습.

넓혀간 도서출판 '사람과산' (대표 홍기수)은 등산의 실용서류를 장악하고 있는 출판사. 월간지에서 쌓은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문출판사치고는 비교적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잡지를 창간한 지는 8년 됐지만 단행본 출판에 뛰어들지는 3~4년 정도. 그래도 이제까지 펴낸 책은 모두 '장사'가 됐다.

“월간지에서 제작해 놓은 지도, 찍어놓은 사진, 취재한 기사를 이용하므로 제작비가 훨씬 줄어든다. 월간지에서 얻은 성과를 단행본으로, 단행본에서 본 이득을 월간지에 다시 투자하니까 이상적인 공생관계”라고 현진오 부장은 말한다.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사람과산이 찾은 120명산시리즈》, 《한국51명산록》, 《한국 100명산 등산지도집》 등은 잡지에 실었던 현장감 넘치는 기사와 사진을 취합해 만들었다.

24개월 예정의 <백두대간 종주>도 내년말로 연재가 끝나면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이다. '백두대간 종주'의 마무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우리 식의 지리개념을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으로 종합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전문출판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앞장서서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산은 '백두대간' 개념을 정착 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얼마전 펴낸 조성필씨의 《태백산맥은 없다》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지리학과의 참고도서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백두대간이라는 산줄기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 산악도서 고전목록 만드는 수문출판사

수문출판사(대표 이수용)는 9년전 여러 분야의 전문출판을 생각하다가 시장성을 생각하고 산악출판을 시작했다. 결과만 말한다면, 그 의도는 크게 빛나갔다. 산악관련 책은 의외로 찾는 이가 적어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문출판사가 지향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산악도서의 고전목록을 갖춰놓겠다는 것. 가장 먼저 산악명저선 12권을 기획해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산을 오르는 데는 기술과 정보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걷는 것 외에 얻을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철학 같은 것이다”

이것이 이수용 사장이 밝히는 산악출판의 이유다. 그래서 수문은 9년 동안 파급력이 미미하지만 산악관련 고전의 출판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티베트에서의 7년》(하인리히 하러), 《알프스의 3대북벽》(안데를 헤크마이어), 《청춘의 샘》(귀도 라머) 등 9권을 펴냈고, 《파미르, 폭풍과 슬픔》(로버트 크레이그), 《모험으로의 출발》(라인홀트 메스너), 《산에서의 젊음》(에로 메두슈카)등

은 계획중이다. 10년 이내에 완간하겠다는 계획으로 남은 3권의 출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량판매라도 고른 도서목록을 갖춰야 한다. 9년쯤 됐으니 이제 쓰러지지는 않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김수용 사장은 곧 창립 10주년을 맞는 것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는다.

### 환경보존과 대중화에 관심 옮기는 추세

산악출판사의 관심은 자연의 보존과 연결된다. '사람과산'은 《꽃산행》이나 《한라산의 꽃》, 《지리산의 꽃》, 《한국의 야생화》 등을 통해 자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평화출판사 역시 “자연을 이름답게 보는 눈, 환경보호의 시작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의 야생》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수문출판사는 책으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사랑에 힘을 쏟고 있다. 우이령보존회와 연어생태학교 등 지속적으로 벌이는 일 외에도 설문조사 같은 캠페인성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올해만도 지난 12일 영월 동강의 댐건설 저지운동을 벌였고, 25·26일에는 남대천 댐공사 저지운동을, 10월 마지막주에는 올해로 4회째 맞는 연어생태학교를 1박2일로 연다.

“출판사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악전문출판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수문의 이수용 사장은 산악출판이 더욱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산악전문출판사들은 산악문학 장르나 작은 판형의 실용서, 에세이류에 관심을 갖는다.

평화출판사는 산악인들의 에세이를 문고판으로 펴냈지만 문고시장의 열악함 때문에 출판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문고판을 펴내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다. 사람과산이 1천5백만원 고료 한국산악문학상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산악문학이 해양문학과 대등하게 자리잡길 바라기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